

포유중인 모돈의 사료관리

용인자연농원 사양2과 노 하 영

- ...포유중인 모돈의 사료관리는 이론적인 수치나 계산으로는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관찰자는...○
- ...세심한 관찰과 기록을 생활화하며 이 자료를 모돈의 사료 관리에 적용하여 철저히 관리한다.○

후보돈으로 선발하여 종돈으로서의 생활사가 시작되는 일정은 중부 임신 분만 포유 이유가 되며 다시 강정기를 거쳐 산차별 번식과정이 반복된다.

모돈 일회번식 회전기간은 포유기간을 30일로 하고 발정재귀일령을 평균 10일로 할 때 155일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을 크게 둘로 구분해보면 발정재귀일령을 포함한 임신기와 분만 후 이유시까지의 포유기로 약 125 : 30일이다.

다두 사육의 양돈에서 종돈사양은 개체관리가 중요한데 개체관리를 잘하려면 사료급여량 조절이 선결문제다. 여기서 30일간의 포유기는 전체 번식기간의 1/4에 해당하는 짧은 기간이지만 분만자돈의 포유로 인해 번식기간중 가장 체력소모가 심하며 사료섭취량이 급격히 늘어나 포유기 모돈의 사료관리는 어느시기보다도 큰 비중을 갖는다. 포유기의 2대 목표는 생산된 자돈을 최대한 포육하여 이유시 체중을 좋게하고 모돈의 영양상태를 균형발전시켜 건강을 유지, 다음 산차번식을 원활하게 해주는데 있다. 두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료관리가 개체별로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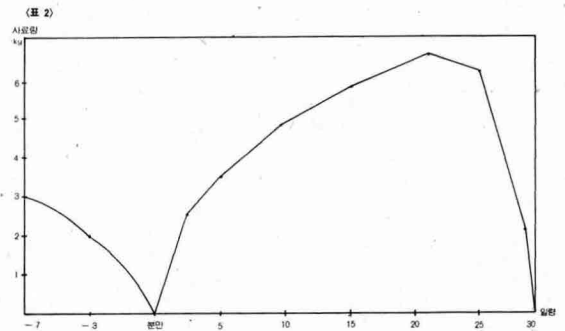
1. 사료 급여 방법

분만후 이유시까지의 모돈의 사료 기준 급여량은 1일 5~6kg 정도이다. 이 기준량을 일령에 따라 증감하여 정확하게 급여하는 것이 관리상의 요점이다. 관리자는 주어진 상황을 분석 당일의 급여량을 결정해야 하는데 세심한 관찰과 기록이 생활화 되어야 한다. 주어진 상황이란 첫째, 탈린 자돈과 모돈의 영양상태를 관

찰하고 둘째, 현황판에 기록된 산차, 포유두수, 분만일령 등을 종합분석하여 당일 사료량을 급여하는 조건이다. 여기서 분만일령은 자돈과 모돈의 영양상태를 변화시켜 급여량 기준에 변수로 작용한다.

〈표 1〉 분만 일령별 사료급여량 (단위 : kg)

분만 일령	사료급여량	분만 일령	사료급여량
-3	2~1.5	4	2.5~3
-2	1.5~1	5	3~3.5
-1	1~0	6	3.5~4
0~1	0~1	7~15	4~5
2	1.5~2	15~25	5~6
3	2~2.5	25~30	5~0



위의 그래프에서 나타나듯이 분만초기와 이유시점에서 곡선이 내려가고 분만20일을 전후해서 높게 올라가 일령에 따른 사료량에 심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시기에 사료관리의 주의할 점을 3대시기로 열거해보면,

○분만직전을 포함한 초기

자돈이 아직 어려 수유량이 적으므로 필요 이상의 젖을 생산하게 되면 유선에 정체되어 유방염을 일으키게 된다. 분만 3일전부터 사료감량을 하여 복부팽대로 난산, 사산, 과잉분비 등 생리적인 불균형을 예방해야 한다. 반면 분만

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식욕부진이나 식욕전쇠의 모돈이 발생되는데 증세에 따른 치료와 병행하여 사료섭취 유도에 각별한 신경을 써서 건강을 회복시켜야 한다.

○분만 20일 전후

비유량이 최고에 달해 모돈의 체력이 떨어져 허약해질 우려가 있다. 사료요구량을 충분히 충족시켜줌과 동시에 자돈의 초사료 관리에도 중점을 두어 모돈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할 것이다. 반면 비유능력이 불량하고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자돈발육이 저조한 경우나 포유두수가 적을 때에는 영양섭취 과잉으로 과비가 될 소지가 크므로 일령과 관계없이 감량을 해야 한다.

○이유시점

포유말기는 다음 산차를 위하여 건유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데 이유시키는 자돈의 체중이 8kg에 달하고 초사료 섭취가 양호한 상태에서 결정해야 한다. 이유후에도 젖의 분비가 지속되면 발정이 지연되거나 유방염이 걸릴 위험이 크므로 사료량을 이유 5일전부터 서서히 감량하여 이유 전일 오전에 1kg이내로 제한 급여하고 오후부터 절식시켜 당일 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허약 과비와 사료관계

종돈의 기본적인 관리기술은 허약이나 과비의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않고 이상적인 체형으로 지속시키는 것이다. 영양상의 균형을 잃게 되면 필연적으로 둘중에 어느 한쪽으로 기울게 마련인데 사료관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종돈이 눈에 띄게 허약이나 과비로 판정되었을 때는 이미 회복이 어렵거나 상당한 시간이 걸려 손실이 크므로 발전되기 이전에 예방 관리가 중요하다. 포유중에는 급여량 증감의 변화가 심

하여 자칫 한쪽으로 기울 위험이 더욱 높다. 분만사에 입주된 임신돈은 실제 포유돈 관리의 영역에 들어가 이 시점부터 개체별로 허약 또는 과비현상이 발전될 조짐이 보이는 임신돈을 점점 기록하여 분만후 사료관리에 참고로 하는 것이 좋다. 모돈의 허약 과비는 자돈의 발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정상적인 모돈이라도 분만 후 7일령 이전에 자돈의 발육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점차적으로 사료량을 조절하는데 양호한 자돈복은 모돈의 비유소모량이 많으므로 급여량을 늘려주고 불량한 자돈복은 반대로 모돈의 비유량이 적으므로 사료량을 줄여주는 등 예방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고온 다습한 하절기를 맞아 모돈의 식욕부진이나 사료부패로 인한 사료중독 발생도 관리측면에서 주의해야할 사항이다. 혹서기에 대비하여 환기 환풍을 비롯한 여러가지 방법으로 방서대책을 세워 돈사내부를 시원하게 하여 식욕을 잃지 않게하며 변질된 사료는 모돈의 피해는 물론 유질을 변화시켜 자돈의 설사를 초래하게 되므로 신선한 사료를 급여할 수 있도록 사료수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모돈의 사료관리는 이론적인 수치나 계산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다. 또한 관리기술이 단시일내에 이루어지거나 무신경한 마음가짐으로 성립될 수도 없다. 이론적인 기술을 개체마다 응용하여 실질적인 요구사항에 가깝도록 관리자의 부단한 연구와 관찰이 뒤따라야 하겠다.

(참고) 모돈의 1일 필수 영양소 요구량

영양소	생체량 (kg)	미 감 산 돈	관 산 돈	포유중인 종산돈	포유중인 관산돈
열량소	110-160	160-250	140-200	200-250	
기소화에너지 (Kcal)	6,600	6,600	16,500	18,150	
대사열 LUXI (-)	6,340	6,340	15,840	17,420	
조 단 백 질 (g)	280	280	750	825	
질 량 (g)	15.0	15.0	37.5	41.2	
인 (g)	10.0	10.0	25.0	27.5	
비 타 민 A (IU)	8,200	8,200	16,500	18,150	
비 타 민 D (IU)	550	550	1,100	1,210	
비 타 민 E (mg)	22.0	22.0	55.0	60.5	

고온 다습한 하절기에는 서늘하게 하여 식욕을 잃지 않도록하고 변질된 사료를 급여하면 모돈의 피해는 물론 유질의 변화로 인한 자돈의 설사초래